

# 베드로전서

## ■ 정리: 계속되는 거룩한 삶 (220914)

### 1. 본문의 문맥

- 1.1.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 1.2. 이러한 거룩함은 특별히 관계 속에 드러나게 됨
- 1.3.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 특히 아내와 남편에게 정중하라!
- 1.4. 그리스도의 ( )을 따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 2. 마지막 권고: 원수 갚지 말라(3:8-12)!

- 2.1. 본문의 대전제: ( )을 받는 상황(3:9)
- 2.2. 다시금 상대를 향해 존중할 것을 명령
  - 2.2.1. 소극적: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 2.2.2. 적극적: 그들을 위해 ( )을 빌라!
- 2.3. 내적 동기: 동정, 사랑, 긍휼, 겸손(3:8)
- 2.4.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 2.4.1. 구약의 가르침: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선한 말로, 화평을 구하라(3:10-12; 시 34:12)!
  - 2.4.2. 의인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주목하는 인생(3:12)
  - 2.4.3. 관계적 의: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삼상 24:17)

### 3.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3:13-17)!

- 3.1. 상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음(3:13)
- 3.2.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음
  - 3.2.1.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음(3:14) → 예수님의 ( )설교(마 5:10-12)
  - 3.2.2. 주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 살아감
  - 3.2.3.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소망의 이유를 말할 준비를 갖추
  - 3.2.4.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
- 3.3. 하나님의 뜻: ( )을 당하더라도 ( )을 행하는 것(3:17)

### 4.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3:18-22)

- 4.1.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 )
  - 4.1.1. 고난, 곧 대속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선을 행하심(3:18)
  - 4.1.2.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
  - 4.1.3. 그 결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3:22) →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 4.1.4.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노아의 이야기를 차용
- 4.2. 베드로전서의 난해구절(3:19-20)
  - 4.2.1.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3:18)

- A. 육체가 죽고 영이 부활했다? → 신약성경에서 부활은 언제나 육체의 부활
- B. 육체와 영은 대조를 이루는 두 개의 존재 질서를 의미
- C. 옛 질서(연약함과 죽음)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새 질서(능력과 생명) 안에서 부활하심

#### 4.2.2.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3:19) → 사도신경

- A. "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죽은 영혼들?
- B. 예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인가? 사후 복음증거와 회심? → 그럴 수 없음(눅 16:26)
- C. "영들"은 신약성경에서 악한 영들을 가리킴; 감옥은 그들의 은신처
- D. 문맥에 있어 "영으로"—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하면
- E.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들의 은신처에서도 그분의 ( )을 선포하셨다는 뜻!

#### 4.2.3. "영들"은 노아의 시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3:20)

- A. 에녹1서의 전통을 따름
- B.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음(창 6:4)
- C. 거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힐 악한 영들이 나옴
- D. 현재까지도 불순종하는 자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 4.2.4. 홍수 = 물 = 구원의 표 = ( ) (3:21)

- A. 홍수의 두 가지 작용: 타락한 자들에게는 심판 vs. 의인들에게는 구원(방주를 띄움)
- B. 베드로는 이를 침례의 상징으로 이해 →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지칭
- C. 침례는 죄를 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
- D.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혹은 ( )의 표현

### 사도신경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장사되셨으며]  
 지옥에 가셨다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